

학술지 영문화에 부쳐

김백남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A Reader's View on the Switch of the Publishing Language from Our Native Language to English

편집장님께

대한감염학회와 대한화해요법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Infection and Chemotherapy가 2013년 영문학술지로 전환될 예정이다. 적지 않은 의학 학술단체가 이미 학술지 발행언어를 국문에서 영문으로 바꾸었다. 예를 들어, 대한소아과학회지는 2010년부터 영문으로만 발행한다[1]. 한글과 영문 학술지를 같이 발행하기 시작한 학술지도 있는데, 대한가정의학회의 공식 학술지는 기존의 영문 명칭(Korean J Fam Med)을 사용하여 2011년 영문학술지로 전환하였고 기존 학술지(가정의학회지)는 새로운 영문제호(Korean J Fam Pract)를 부여하여 한글로 발행하고 있다[2].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지를 본래의 영문제호(Korean J Lab Med, 2012년 Ann Lab Med로 변경)를 사용하여 2011년 영문학술지로 바꾸면서 국문학술지로 Lab Med Online을 창간하였다[3].

학술지 영문화는 단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다른 나라의 학술지도 영문화를 추진하고 있다[4]. 국내 학술지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도 영문화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5]. 영문학술지 발행이 학술단체의 발전과 국제화의 척도로 간주되기도 한다[6]. 무엇보다 국내 의학학술지의 영문화는 학술지의 SCI 등재에 목적이 있음은 모두가 아는 바이다.

교수와 대학의 업적 평가, 채용과 승진, 연구비 지원 등에 SCI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편수가 중요해졌다[7]. 이에 따라 좋은 원고는 저명한 외국 학술지에 먼저 투고하였고 거기에 내지 못한 원고를 국문학술지에 보냈으며, 그렇게 국내용으로 발행된 논문은 애써 읽지도 않고 인용하지도 않게 되었다[8]. 어느 국문학술지에 투고된 원고 대부분은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갖추려는 전공의들이 쓴 것이기 때문에 논문의 질이 낮다고 하는데[2, 9], 이는 그 학술지에 국한된 말이 아니다.

국내 의학학술지를 영문화하여 Medline, Scopus, SCI(E) 등의 국제학술색인에 등재시키면 소위 "SCI급 논문"을 위해 외국으로 빠져 나갈 영문 원고가 되돌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5]. 한편, 국문 원고는 다른 국문학술지로 투고가 유도되어 결과적으로 그 학술지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5]. 그럼에도 질 낮은 국문 원고가 계속 쓰여져야만 하고 국문학술지는 그런 원고를 계속 받아야만 하는가? 전공의 수련과정은 훌륭한 임상 의사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와 논문 작성에 전념할 기회와 시간을 체계적으로 보장해주지 않으면서 전공의들에게 연구 결과를 제출을 의무화한 제도는 합리적이지 않다. 연구 활동과 논문 작성은 대학원생과 임상강사 그리고 교원에게 요구할

Baek-Nam Kim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Inje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Busan, Korea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 2012 by The Korean Society of Infectious Diseases | Korean Society for Chemotherapy

Submitted: November 9, 2012

Accepted: November 9, 2012

Correspondence to Baek-Nam Kim, M.D.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Inje University Sanggye-Paik Hospital, Nowon-gu, Seoul 139-707, Korea

Tel: +82-2-950-8863, Fax: +82-2-950-1955

Email: kimbn@paik.ac.kr

의무다.

Infection and Chemotherapy의 영문화는 향후 몇 가지 원하지 않는 일을 초래할 것 같다. 공수병의 현황과 예방조치, 해외유입기생충 질환, 대유행 인플루엔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정책을 다룬 설문 결과, 세균성 상부호흡기감염치료 등의 주제로 지난 2년 동안 Infection and Chemotherapy에 실린 원저와 고찰은 애초에 내국인 독자를 대상으로 쓰여졌다. 한글로 써야 원고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었다. 앞의 논문들은 영문으로 발행되더라도 한반도 밖의 독자에게 가치 있어 보이지 않는다. 영문학술지는 특히 해외에서 인용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국제적 관점(global perspective)에서 편집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영문 Infection and Chemotherapy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제는 다루기 어려워질 것 같다. 따라서 우리가 처한 지역과 사회의 특성에 따라 생기는 국지적 현안은 Infection and Chemotherapy에 적합한 주제가 아니라고 여겨지고, 반대로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도 현재 외국에서 논쟁거리이기에 더 다루어질지도 모르겠다[10].

Infection and Chemotherapy가 영문화되면 가독률 감소는 둘째 치더라도 외부 저자와 독자의 접근은 제한될 것 같다. 영문화로 독자층이 좁아져 후천성면역결핍증이나 2009년 대유행 인플루엔자와 같은 전염병의 역학 정보를 학계나 의료계뿐만 아니라 보건당국이나 다른 직종의 보건의료종사자가 쉽게 공유할 기회도 없어질 것 같다. 학술지를 통하여 여론을 만들고 정책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능도, 이제까지 그러지 않았을지라도, 기대하지 못할 것 같다. 내국인 독자를 위한 국내 진료지침조차도 이방의 언어로 쓰고 읽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독자들에게 Infection and Chemotherapy는 임상의학의 한 분야인 감염학을 다루는 유일한 국문학술지로서 고유한 존재가치가 있었다. Infection and Chemotherapy는 지난 10년 동안 선후배, 동료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괄목할만하게 달라졌고 앞으로도 국문학술지로서 의학 발전에 기여할 여지가 많다. 내년 영문학술지 발행으로 Infection and

Chemotherapy는 “감염”과 “대한화학요법학회지”가 통합된 2003년 이래 새로운 차원으로 전환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전염병의 역사를 기록해온 국문학술지가 사라진다는 현실이 독자의 한 사람으로 참 아쉽다.

References

1. Rha YH, Lee JS. Announcement of publication of the Korean Journal of Pediatrics in English. Korean J Pediatr 2010;53:615..
2. Kim K. KJFM written by English not Korean. Korean J Fam Med 2010;31:827-8.
3. Chang CL. A report on the progress of the publication of Laboratory Medicine Online. Lab Med Online 2012;2:117-8.
4. Research Information. Changing language can help reach global audience. Available at: http://www.researchinformation.info/features/feature.php?feature_id=326. Accessed 1 November 2012.
5. Kim SY. English Journal: the destination of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Korean J Fam Med 2009;30:378.
6. The Doctor. Available at: <http://www.thed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8>. Accessed 1 November 2012.
7. Huh S. Recent trends in internationalization of scholarly journal. Available at: http://www.kamje.or.kr/workshop.php?workshop=workshop_110330. Accessed 1 November 2012.
8. MO news. Available at: http://www.monews.co.kr/News/news_view.aspx?Cid=H0101&Cno=56269. Accessed 1 November 2012.
9. Joo NS. Clinical aspect of published articles. Korean J Fam Med 2010;31:419.
10. Choi SH. Severe adenovirus pneumonia. Infect Chemother 2012;44:407-8.